

PeopleSoft, 화학제품 솔루션 공급

화학산업에 Demand-Driven 시스템 도입 ... 위기타파 대안으로 제시

PeopleSoft가 2003년 ERP(Enterprise Resource Planning) 소프트웨어 공급기업인 J.D. Edwards & Company를 인수한 후 화학산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해 수요주도형 생산(Demand-Driven Manufacturing) 및 Lean Manufacturing 솔루션 공급에 주력할 방침이다.

PeopleSoft는 J.D. Edwards 인수를 통해 화학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부문의 입지를 강화했으며 특히 중간시장(Mid-Market)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.

화학산업은 PeopleSoft의 자산집중(Asset-Intensive)산업 영역에 속하는데 여기에는 다운스트림 에너지, 설비, 종이 및 포장, 원유 및 가스 등이 포함돼 있다.

PeopleSoft의 화학산업 솔루션은 약 10개 주요 사업으로 나누는데 기업자산관리, 운영, R&D, 전략적 공급망관리, 유통, 재무관리, 사업지원, 판매 및 소비자 서비스 등이 있다.

PeopleSoft는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으로 수요주도형 생산 및 Lean Manufacturing에 초점을 두고 있다.

수요주도형 생산방식은 소비자와 공급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생산자는 실시간으로 소비자 수요에 따라 생산계획과 가동률을 조정할 수 있으며 수요변화도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생산-공급망-구매의 통로를 단축시킬 수 있다.

PeopleSoft는 2004년 5월 PeopleSoft EnterpriseOne 8.10을 출시했는데 수요주도형 생산기능을 강화시켰다.

수요측면에서 Customer Self-Service Portal은 고객의 주문과 요구사항의 변동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면서 사용자가 합동예측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. Demand Scheduling Execution은 공급자가 생산계획을 산정할 때 공급망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다.

공급측면에서 Buyer Working Space는 구매자가 공급망을 간소화하고 다양한 공급자들을 서열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급자의 실적검색 뿐만 아니라 구매주문 및 영수증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했다. Supplier Self-Service Portal은 조달, 예측, 실시간 재고파악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.

PeopleSoft의 EnterpriseOne 솔루션은 수급차원의 개선 뿐만 아니라 ALM(Asset Life-Cycle Management)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. ALM은 자본지출 관리를 지원하고 설비투자 수익률 증대를 위한 자산 보유량을 설정해 준다. ALM은 화학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부문에서 매우 중요한 솔루션으로 지목되고 있다.

ALM 기능 중 Condition Based Monitoring은 자산의 상태 및 실적의 변동현황을 자동파악하여 최적 수준에서 운용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. 특히, 각 자산의 특징을 파악하고 분석한 후 상하한선을 설정해 평상시 설비가동에 이상이 있으면 경보기능을 발휘한다.

또 Equipment Cost Analysis는 사용자가 가동 및 수리코스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직접 작업현장과의 연결을 통해 설비코스트 증가 원인을 파악하고 해소할 수 있게 한다.

PeopleSoft는 ALM의 추가 기능이 포함된 두개의 업그레이드 솔루션을 출시할 계획이다.

PeopleSoft는 화학산업이 자본수익률 하락, 원료코스트 상승, 그리고 중국·인디아·동유럽 등 신흥시장 부상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자산 및 공급망 최적화를 통한 코스트다운과 수요주도 생산방식 솔루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4/08/23>